

“바람직한 건축사 상(像)”

장 상 진

동신건축사사무소

부 조리의 척결이니 정확히 하는 어휘는 보조원 시절부터 건축사 회원이 되고도 십수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결같이 들려 오고 있다. 그 슬한 결의대회와 구호, 그 많은 벌칙조항과 당국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정확의 필요성이 계속 주장 되고있음은 어인 일일까? 고도로 발달된 현대 의학에 있어서는 병의 원인만 알게 되면 그 치유방법의 발견은 시간 문제이며 실제로 많은 병들이 정복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암에 대한 치료 방법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모든 성격상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시켜 암세포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약물이나 기술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간 많은 노력에 의해서 1차적인 부조리는 거의 정확 되었다고 보여지나 좀더 고차적인 분야에서의 정확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는 이유는 정상적인 건축활동과 부정적인 건축활동간의 구별이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되어진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이를 구별하려는 필요성을 못느끼다 보니 이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오히려 적합한 것 같다. 공사 감리를 하다가 일조권을 몇 CM 위반했다던가 설계비 덤핑을 하여 건축사 품위를 손상시킨다든가 하는 행위는 우리 건축사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는 않으며, 만약 이런 일들이 만연하여 문제가 심각해지더라도 조금 더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단시일내에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건축계를 치명적이고도 만성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은 다른 부문에 있다고 보며 이제부터라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을 모색하는데 전력 투구 해야만 한다.

우리를 대변하는 “건축사”지에서 요즘 소개 되는 건물을 보면 고급주택, 고급건물, 고층빌딩의 일색이며, 더구나 바람직한 건축활동을 했다고 찬사와 상을 받는 건물들의 대부분도 이런 유(類)의 건물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민의 입장에

서 볼 때 집을 지으려면 싼든 좋은 건축사에게 설계와 감리를 맡겨야 한다. 서민들의 생의 결정체인 방1칸은 세놓고 2칸을 주인이 사용하는 20평형 주택은 완벽한 설계가 이미 확정 되어져서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인지? 6교대 내지는 8교대로 운영되는 공장 종업원의 식당에 대해서는 이미 만족 할만한 정답이 나와 더 이상 개선 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솔직히 이런 경우 건축사의 입장에서 설계비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이를 연구 개발하여도 빛도 나지 않는 건물이라 대중 손해가 없는 한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 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서민에게는 20평형의 집이라도 평생을 땀흘려 모은 온가족의 생명이자 일생의 보람인 것이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건축사협회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자명해짐을 알 수 있다. 사회의 저변과 그늘진 곳을 애정을 가지고 돌봐준다는 것은 생색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설계비 덤핑의 폐해가 얼마나 큰것인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가끔 주객이 전도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설계비를 얼마 받았느냐는 것보다는 건축주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주었느냐가 더 중요하리라고 본다. 즉, 천원을 받고 팔백원 만큼의 일을 해 준 사람이 이천원을 받고 천원만큼의 일을 해 준 사람보다 훌륭하다는 사실을 한번쯤 생각해야만 한다. 덤핑을 하지 않고 설계비를 제대로 받는다는 생각과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흔히 빠지기 쉬운 유이독존(唯我獨尊)적 이기심과 자만심이 겹쳤을 때, 서민들의 눈에 건축사가 어떻게 비칠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느 전문직종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우리 건축사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이 와중에서 일을 수주하다 보면 주관적이고도 독선적인 논리로 상대방의 작품내지는 인물을 깎아 내리는 경우가 있다. 몇년전 치과에서 보철을 한적이 있다. 얼마후 다른 이(齒)가 나빠져 다시 보

철을 해야했기에 지난 번의 치과를 찾았더니 이전을 하고 없어 그 근처의 다른 치과로 갔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한마디로 지난번의 시술자를 돌팔이로 몰아붙이고서 자신은 기술이 뛰어나며 회생정신이 투철한 자라며 마치 제2의 슈바이처나 된 것처럼 자랑했다. 그가 아무리 자기 P·R을 해도 의사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로만 받아 들여질 뿐이지 하등의 자랑거리가 못되는 것 같았다. 나의 관심은 단지 의료수가(酬價)에 있었다. 그가 제시하는 금액은 실제로는 싼 가격일는지 모르지만 호주머니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비싼 기분이 들어 좀 각자고 했으나, 협정요금 운운에다 극히 독선적이고도 아전인수적인 설득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순간 뇌리를 스치는 것은 나 역시 고객에게 이 의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었다. 나의 등에 식은 땀이 흐름을 느꼈다. 현대와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는 당연히 스스로 찾아야 하며 자기 P·R도 필요 하겠지만, 항상 객관적인 자세로 자성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것 같다. 그동안 우리 회원수도 늘어나고 각자 노력도 많이하여 사회에 이룬 업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들의 건축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아짐은 사실이나, 반면에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냉정한 눈초리로 주목하고 있음도 알아야겠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언행은 항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또한 봉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무에 종사하다 보면 각종 법규나 규제등이 상호모순 되거나, 지방과 서울, 지방과 지방의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비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조항으로 현저한 불이익을 당한 건축주가 항의라도 하면 책임전가와 변명에만 급급하고 한수 더 떠서 덩달아 불평만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개선과 발전은 영영 멀어지고 말것이다. 나 아니면 누가 이런 곳을 일을 하겠느냐는 사명감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라도 연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하여 이를 관철 시킬려고 적극 참여하는 건축사가 되어야겠다.